



▲ 코스피	2288.66 (+7.08)	▼ 코스닥	816.16 (-2.70)
→ 금리 (미국 3년)	1.90 (0.00)	▲ 환율 (원/달러)	1128.40 (+5.60) (10일)



[뉴스] 재계 떨게 한 기업집단국 출범 1년 02

‘편의 전쟁’된 中 ‘칩 굴기’... 20년 아성 韓 ‘심장’ 겨룬다

〈錢〉

〈반도체〉

흔들리는 IT코리아

1 반도체

한국의 주요수출부문의자 자랑거리인 IT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메모리 위주인 반도체 부품은 거세게 쫓아오는 중국업체에 추격당하는 중이다. 한 때 세계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했던 스마트폰은 고급시장을 아이폰에, 중저가시장을 중국폰에 빼앗기며 샌드위치처럼 압박당하고 있다. 핵심장비의 외국 의존과 소프트웨어 역량 부족은 노트북 같은 제품판매부터 5G, 인공지능(AI)같은 미래산업개척까지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다. 현재 글로벌 시장의 주요 IT제품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미래 반도체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 초격차가 유지돼야 한다.”

지난 8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김동연(오른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경기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라인 투어 후 간담회를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차원 대규모 지원 업고
중업계 반도체 경쟁력 키워
JY, 4 차산업혁명 선도 위해
반도체기술 초격차 유지 강조**

부회장이 삼성전자화성사업장내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반도체 외에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생활가전 등

규모가 큰 분야를 전부 가지고 있는 기업 수장이 직접 특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세계에서는 20년 넘게 메모리 반도체에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에 자신감 외에도 절박함이 느껴졌다. 고 평가했다.

몇 년전부터 전세계 반도체 산

업은 호황기를 맞고 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전세계에서 20여개 이상의 회사들이 치킨 게임 벌이다 사라진 가운데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살아남아 호황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11조 6100억원이었으며 3분기 영업이익은 17조 282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8.9%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어지간한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에 맞먹는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남긴 것이다.

SK하이닉스의 경우 2분기 영업이익 5조 5739억원을 기록했고 3분기는 약 6조 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언제부터인가 한국 반도체 산업은 강력한 도전을 맞고 있다. ‘반도체굴기’를 외치며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는 중국업체의 부상 때문이다.

후발주자인 중국업체가 암암리에 파격적 투자를 약속하며 한국 반도체 기술자를 빼가고 있다는 건 이미 업계에 널리 퍼진 사실이다. 반도체 기술자의 경우 국내 업체에서 받는 연봉의 최소 2배, 많게는 4~6배의 연봉을 받고 이직하고 있다. 정보기관 등에서는 국내 전문인력 유출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공정 노하우를 포함한 산업기밀까지 같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

속격차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지분투자를 하고 있다.

경쟁자의 등장만 국내 산업에 위협이 되는 게 아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한국의 미세공정 경쟁력이 확고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한다. 반도체 기업 경쟁력을 대표하는 최신 미세공정을 만드는 핵심장비인 (극자외선) EUV 노광장비를 네덜란드의 ASML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EUV 노광장비는 ASML이 독점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ASML 장비 주문 내역만 봐도 전세계 반도체 생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

반도체 제조를 위한 실리콘 웨이퍼 위에 얼마나 가늘게 회로를 그릴 수 있는 지가 결정적인 생산 효율 차이를 가져온다. 더 집적된 회로를 가질수록 소비전력이 적어지고 칩당 용량은 커진다. 따라서 생산단가 경쟁력에서 크게 앞서가게 된다. (2면에 계속)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창덕궁 찾은 韓-인니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0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 부용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숙 여사, 문 대통령, 조코위 인니 대통령, 이리아나 여사. /뉴스1

평양정상회담 방북단 200명

국회의장 등 정치권 9명에 초청장

이달 1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예정돼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위해 청와대가 200명 안팎의 방북단을 꾸리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평양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 9명을 초청한다고 10일 밝혔다. 방북단에는 경제인도 추가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치권 초청 대상은 문희상 국회의장, 이주영·주승용 국회부의장,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초청하는 분들이 일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 부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 간 새 장이 열리는 순간이며, 특히 비핵화 문제도 매우 중대한 시점인 이 순간에 대응적으로 동행해 주길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는 남북국회회담을 이미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나, 이번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또 “국회가 함께해야 제대로 남북 간에 교류협력의 안정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며 “국회 외통위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정치권 초청 인사를 대상으로 한병도 정부수석을 통해 이번 주 중 동행 취지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한국안센·바이엘서 골드만삭스·UBS까지 실적 악화일로... 짐싸는 글로벌 기업

미중 무역전쟁 확대 등 불안한 대내외 환경에 외국계 자본 엑소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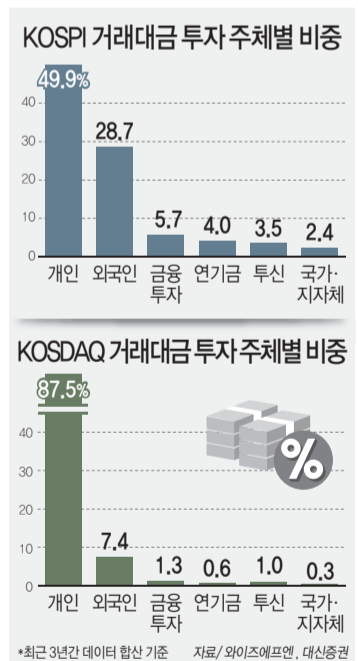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대형 로펌 심슨대처바틀렛이 한국 시장에서 짐을 싸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 법무법인(로펌) 중 첫 사례다. 거대 제약사인 한국안센과 바이엘코리아도 국내 공장 철수를 예고한 상황이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행(영국), 바클레이스은행(영국),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BBVA은행(스페인), UBS(스위스) 등 글로벌 금융사에 이어 외국계 로펌과 제약사까지 한국시장을 등지고 있는 셈이다. ‘케이팝(K-POP)’에 밀려 한국시장에서 짐을 싣는 곳(하드 록 카페)도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차이나하오란, 완리 등 중국기업들이 증시에서 퇴출됐다.

한국시장에 짐을 싸는 표면적인 이유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본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이다. 하지만 한국시장에서 더는 먹거리를 찾기 힘들고,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풀린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확대, 미국의 금리인상 등 불안한 대내외 환경으로 글로벌 기업과 외국계 자본의 ‘엑소더스 코리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펌·제조업까지 한국서 짐싼다

지난 7일 오후 7시 40분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IFC서울) 지하 쇼핑몰. 퇴근한 증권맨들과 쇼핑몰을 찾은 이들로 북적였다. 지하 2, 3층 ‘OO식당’ 등에는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었다. 직장인 이래면 씨(35)는 “주일에 두 세 번은 꼭 들른다. 비즈니스 미팅이나 점심은 물론 영화관까지 있어 저녁 여가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상부 오피스동은 아직도 불 꺼진 곳이 많다. 한화63시티에 따르면 연면적 3만㎡ 이상 대

규모 빌딩인 FKI타워(전경련 회관)와 서울국제금융센터(IFC)의 공실률은 30%대를 웃돌고 있다.

외국계 금융기업은 물론 제조업체까지 한국시장 진입을 꺼리거나 방을 빼고 있다.

동양자산운용과 ABL글로벌자산운용(옛 알리안츠자산운용)은 인수합병(M&A) 매물로 거론된다. 이들은 해외 금융회사 매각에 나선 중국 안방보험이 보유한 회사들이다.

심슨대처는 연내 한국사무소를 닫기로 결정하고 정리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 관련 업무는 홍콩사무소가 담당하기로 했다.

심슨대처는 미국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펌이다. 심슨대처 한국사무소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근본적인 이유는 외국계 로펌이 맡을 수 있는 일이 일부 자문업무로 제한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심슨대처 외에 한 영국계 로펌도 핵심 인력이 이탈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엘코리아는 지난달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안성공장을 올해 연말까지만 운영기로 결정했다. 이 공장에선 컴퓨터 단층(CT) 촬영 등에 쓰이는 조영제를 생산했다. (3면에 계속) /김민호 기자 kmh@